

▶법회 및 기도 안내◀

- 일요법회: 매주 일요일 오전 11:00 - 12:30
- 어린이 법회: 일요일 오전 11시
- 청년(선우회) 법회: 일요일 오후 14시
- 어린이 한글학교: 토요일 오전 9시 30분

▶공지사항◀

- 기도입재: 2014년 12월 7일(일) 11시
 - 기도회향: 2015년 3월 8일(일) 11시
 - 동참비: 가족 \$100, 영가(돌아가신분)님 \$50
 - 기도 및 수행 시간: 5:00, 11:00, 20:00
- 불교강좌 안내
 - 12월 11일 - 3월 5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(12강의)
 - 12월 12일 - 3월 6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(12강의)
 - 강의료: \$60(교재포함)
 - 교재: 『불교입문』,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,

▶기도동참 (11월16일 - 22일)◀

- 법등: 음주희 홍정숙 무명 김승한 박영규 강세환
김영이 이미나
- 백일기도: 김승한 박영규 송수진 이재광 현심화
- 인등 만등: Liam
- 과일 떡공양: 차원석 임보배
- 대증공양: 홍슬기(생일공양) 과일공양: 최정호

BULTASA BUDDHIST TEMPLE OF CHICAGO
4360 W. MONTROSE AVE., CHICAGO, IL, 60641
T: 773-286-1551, F: 773282-2663
www.bultasa.org

- 회주: 현성스님
- 주지: 성향스님

일요법회

불기 2558(2014)년
11월 23일 제16호



부처님 말씀

항상 남을 존중하고
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에게는
아름다움과 편안함, 건강 그리고 장수
이 네 가지 복이 더욱 자란다.

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
행실이 나쁘고 마음이 어지럽다면
마음의 고요를 지니고 덕행을 쌓으면서
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

-법구경-

4. 명색(名色)

(영어: name and form, 산스크리트어: nāmarūpa, 팔리어: nāmarūpa)

명색(名色)은 명(名)과 색(色) 즉 정신과 물질 또는 마음[心]과 육체[身]를 통칭한다. 명(名) 즉 정신 또는 마음[心]은 5음(五陰) 가운데 수음 · 상음 · 행음 · 식음의 4무색음(四無色陰)을 말한다. 색(色) 즉 물질 또는 육체[身]는 5음(五陰) 가운데 색음을 말한다. 여기서, 색음 · 수음 · 상음 · 행음 · 식음의 5음(五陰)은 색온 · 수온 · 상온 · 행온 · 식온의 5온(五蘊)의 구역(舊譯)이다. 그리고, 대상을 제외하고 유정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만 볼 때, 여기서의 마음[心] 또는 정신[名] 즉 4무색음은 마음(6식 또는 8식, 즉 심왕, 즉 심법)과 마음작용(심소법)을 합한 개념이다. 육체[身] 또는 물질[色]은 안 · 이 · 비 · 설 · 신의 5근을 말한다.

명색(名色)은 정신적인 것[名]과 물질적인 것[色]으로서 이 현상세계의 존재를 가리킨다.

5. 6입(六入) (영어:six sense gates, six sense bases, 산스크리트어:ṣaḍāyatana, 팔리어:saḷāyatana)

6입(六入)은 6처(六處) 또는 6근(六根)이라고도 하며 6개의 감각기관으로서 이 감각기관을 통해 식(識)이 작용하게 되어 명색을 인식한다

6입(六入)을 6입처(六入處)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소경(小經)에 나타난 고타마 붓다의 설명에 따르면, 6입처는 안입처(眼入處) · 이입처(耳入處) · 비입처(鼻入處) · 설입처(舌入處) · 신입처(身入處) · 의입처(意入處)의 6내입처(六內入處)를 말한다

입처(入處)라는 낱말은 입(入)과 처(處)가 합쳐서 이루어진 낱말이다. 입(入)은 섭입(涉入: 거두어들임) 또는 촉입(趨入: 재촉하여 들임)의 뜻으로 6근(六根)과 6경(六境)이 서로를 거두어들

이는 것을 가리킨다.

《아비달마구사론》에 따르면, 처(處)는 생장문(生長門)을 뜻하는 것으로, 마음과 마음작용이 생겨나게 하고 증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.[77][78] 즉, 6근은 6식 즉 마음의 단순한 인식도구가 아니다. 6근은 마음의 인식도구일 뿐만 아니라 마음(6식 또는 8식, 즉 심왕, 즉 심법)과 마음작용을 현행하게 하고 그 세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. 특히 6근 가운데 의근(意根)의 경우 이러한 점이 두드러진다.

6. 촉(觸)

(영어: contact, 산스크리트어: sparśa, 팔리어: phassa)

촉(觸)은 안촉신(眼觸身) · 이촉신(耳觸身) · 비촉신(鼻觸身) · 설촉신(舌觸身) · 신촉신(身觸身) · 의촉신(意觸身)의 6촉신(六觸身)을 말한다.

여기서 신(身, 산스크리트어: kāya)은 이 단어의 일반적 의미인 몸 즉 신체의 뜻의 명사로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, 복수 · 집합을 뜻하는 복수형 접미사 '~들'로서 사용된 경우이다. 그리고 촉(觸)은 마음작용들 가운데 하나로 근(根) · 경(境) · 식(識) 3사(三事)의 화합을 말한다. 촉(觸)은 6입과 명색과 식이 접촉하는 것이다

7. 수(受) 영어:sensation, feeling, 산스크리트어: vedanā, 팔리어: vedanā, 수(受)는 고수(苦受) · 낙수(樂受) · 불고불락수(不苦不樂受)의 3수(三受)를 말한다. 부파불교와 대승불교 등 불교 일반에 따르면, 수(受)는 마음작용들 가운데 하나로 촉(觸) 즉 '근경식 3사 화합'을 바탕으로 하여 일어난다. 수(受)는 6입과 명색과 식의 접촉 위에서 생기는 고통 등의 감수작용이다.

